

아프리카 국가별 경제동향 및 전망



1.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

□ 개요

- 2013년에도 유로존의 불확실성, 미국의 재정절벽, 중동지역 분쟁가능성 등 여러 위험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선진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, 각국 정부들이 긴축재정 보다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,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금융시장, 환율, 상품시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.
 - 다만, 2012년 하반기 이후 원유 및 밀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, 세계 경제도 전반적인 침체상태에 있어 2013년도 물가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.
- 신흥시장 경제는 선진권의 경기침체 분위기와 달리 일정 수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주요 상품가격

- 경기 개선 등에 따라 상품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.

① 원유

- 원유 수요의 정체 및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당분간 원유가격은 배럴당 100~114달러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,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악화될 경우 가격상승이 불가피함.
 - 2013년 원유수요 증가율은 과거 10년간 평균치인 1% 내외로 예상되며, 지역별로는 세계 수요의 40%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낼 것이나, 유로존(전체의 15%)은 예년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.
 - UN은 이란이 6~8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최근 이스라엘 총리가 금년 상반기 이란을 공습 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어 원유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.

- 한편, IEA에 따르면, 미국은 2017년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이 될 것이며, 2035년부터는 자체 생산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,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원유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.

② 금

- 금은 안전자산으로써의 매력, 저금리 상황에서의 투자가치, 각국 중앙은행들의 구매 수요 등에 힘입어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, 당분간 온스당 1,600~1,8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.

③ 구리

- 세계 구리수요의 60%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호조 및 미국의 주택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. 한편 전체 수요의 17%를 차지하는 유럽의 경우 2014년 이후에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-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고, 세계 경기도 점차 회복되면서 구리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인바, 톤당 평균가격은 7,700~7,800 달러 수준으로 예상됨.

2. 아프리카 국가별 경제동향 및 전망

□ 개요

- 아프리카는 신규 자원개발, 대규모 투자유입, 인프라 개발,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약 5%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- 2011년도 FDI 유입규모는 약 420억 달러로, 최근 10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치임.
-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, 채권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이지리아, 가나, 케냐 등 아프리카 주요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.

앙 골 라

□ GDP : 8.0~8.5%

- 2012년 앙골라 GDP 성장률이 7.5%로 추정되는 가운데, 2013년에는 원유 증산 등에 힘입어 8%, 2014년에는 8.5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.
 - 2012년 원유 생산량은 2011년의 하루 1.6백만 배럴에서 1.7백만 배럴로 증가하였으며, 앙골라 정부는 이를 2013년 1.9백만 배럴, 2014년 2.0백만 배럴로 늘린다는 계획임.
 - 2013년 및 2014년 원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각각 109달러 및 114달러가 될 것으로 보임.
- 한편 원유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,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불안 상태 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□ 물가 : 9.0%

- 세계경기 침체, 환율안정 등에 힘입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겠지만, 2013년 9.0%, 2014년 8.3% 등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 - 앙골라의 높은 물가수준은 생필품의 70%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,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데서 주로 기인함.

□ 기준금리 : 9.75%

- 물가의 하향안정세, 경기부양을 위한 대출확대 필요성 등으로 인해 향후 기준금리는 현 10.25%에서 9.75%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.
- 앙골라 사업 수행 외국기업들이 현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불토록 하는 법이 2년내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, 달러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.

□ 재정수지 : 5.0% 재정흑자

- 거시경제 정책의 개선, 원유 수출 등에 힘입어 재정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13년 5%, 2014년에는 다소 낮은 4%의 재정흑자가 예상됨.
- 앙골라는 아프리카 국가 중 채무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, 원유가격 급락 및 오일펀드 부실운영 등에 대비해 50억달러 규모의 정부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, 국내외 자산투자 및 인프라 개발 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임.

□ 환율 : 2013년 98.65 및 2014년 96.00

- 수출 회복, 국제 원유가격의 강보합세 전망,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라 앙골라 Kwanza화(AOA)의 강세가 예상되는바, 대미 달러 대비 환율은 2013년말 98.65, 2014년말 96.00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보 츠 와 나

□ GDP : 4.0%

- 다이아몬드 생산 감소 및 정부의 긴축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확대 및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2013년 GDP 성장률은 2012년 3% 보다 높은 4%에 이를 것으로 보임.
 - 전반적인 저금리 현상에 따라 가계 및 기업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주택경기 붐이 버블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.
 - 사회복지예산 지출확대 및 광업부문 약세 등에 따라 2013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.
- 다이아몬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임.

□ 물가 : 7.0%

- 2013년 물가는 상반기 중 6%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으나 내수 확대 및 남아공의 높은 물가상승률, 자국통화 약세 등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져 연평균 7~8% 선이 될 것으로 보임.

□ 기준금리 : 9.50%

- 2013년 기준금리는 9.5%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, 2014년에는 내수경기 호조 및 신용대출 증가 등에 따라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임.

□ 재정수지 : 균형재정

- 2009년 GDP의 11%에 달했던 재정적자 규모가 2011년도에는 2.1%로 축소되었으며, 2012년에는 1%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, 전체 부채규모는 GDP의 24%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환율 : 8.26

- 2012년중 보츠와나 Pula화(BWP)는 남아공 Rand화의 약세에 따라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, Rand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음.
 - 보츠와나는 '밴드바스켓시스템(Band Basket Crawl Exchange Rate System)'을 유지하고 있어 자국 통화 가치가 남아공 Rand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음.
- 2013년말 BWP의 대미 달러 환율은 8.26으로 예상되며, 남아공 Rand화에 대해서는 0.96~0.90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.

가 나

□ GDP : 7.5% 성장

- 석유생산 증가 및 호텔, 운송, 금융 등 서비스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7%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.
- Jubilee 유전의 생산증대와 함께 Tweneboa, Enyenra 및 Ntomme 등 3개 신규 유전의 생산개시 등으로 생산량이 급증, 2016년에는 하루 생산량이 16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
- 2011년 100만톤 이상 생산되던 코코아가 2012년 80만톤으로 감소하였으나, 2013년에는 다시 91.5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, 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농업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물가 : 9.5% 인상

- 2013년도 물가는 2012년 12월 대선이후 정부지출 및 소비 확대, 연료가격 인상 등에 따라 9.5%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, 2014년에는 8.5%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. 다만, 민간 대출 급증 등이 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.

□ 기준금리 : 15.0%

-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 등에 따라 2013년 정책금리는 현재의 15%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, 2014년부터는 물가의 하향안정세에 힘입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.

□ 재정수지 : 6.5% 재정적자

- 경기 호조 및 석유가스 부문에서의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, 빈곤퇴치 및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,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,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.5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
- 인프라 개발비용 증대(매년 약 10억불 소요) 및 원조자금 유입축소 등에 따라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그 예로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30억불의 비양허성 자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환율 : 1.85

- 지속적인 경기호조, 금 및 코코아 수출증대, 외화자산의 꾸준한 유입 등에 따라 2013년 가나 Cedi화(GHS)의 대미달러 평균 환율은 1.85가 될 것으로 보이며, 2014년에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.

모 잠 비 크

□ GDP : 8.0% 성장

- 광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예상보다 많은 해외직접투자 등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되고 있으나, 교통인프라 및 숙련 노동력 부족,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2013년 8%, 2014년 7.5%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.
- 특히 현재 개발중인 해상가스전과 관련, 2014년부터 LNG 시설 등을 위한 대규모 FDI가 유입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2019년 상업생산이 시작될 경우, 가스 주요 수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며, GDP에서 차지하는 가스 산업의 비중도 13%에 이를 것으로 보임.

□ 물가 : 7.0% 인상

- 2012년 1.4%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이 기저효과, 환율인상, 운송요금 급등(41%) 등으로 인해 2013년에는 7%, 2014년에는 8%까지 오를 것으로 보임.

□ 기준금리 : 9.50%

- 글로벌 경기침체 및 이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, 거시경제 목표 달성 등을 위해 기준 금리를 현재의 9.5%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임.

□ 재정수지 : 6.3% 재정적자

- 농업 및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재정확대로 인해 재정적자 폭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.3% 및 6.5%로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부채규모도 GDP의 45%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.

□ 환율 : 29.0

- FDI의 지속적인 유입에도 불구하고,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모잠비크 Metical화(MZN) 가치가 점진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, 대미 달러 환율이 2013년은 29.0, 2014년 말에는 32.0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나 미 비 아

□ GDP : 4.5% 성장

- 2013년 불안정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, 계속되는 광업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4.3%에 이를 것으로 보임.
 - 특히, 2013년 착공 및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 중인 Husab 우라늄 광산이 고용 및 내수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□ 물가 : 5.7% 상승

- 2012년 물가는 환율상승, 연료 및 식품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하였으나, 2013년 및 2014년에는 기저효과, 구매력 감소 등에 따라 5.7%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.

□ 기준금리 : 5.5%

- 2012. 8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5.5%의 금리가 금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나 2014년에는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재정수지 : 5.2% 재정적자

- 2013년 부채규모는 2012년 교사 파업에 따른 임금인상,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라 GDP의 5.2%(‘12년 4.7%)로 확대될 전망이다.

□ 환율 : 8.6

- 나미비아 달러(NAD)는 남아공 Rand화와 1 : 1 비율로 고정되어 있는바, 2012년에는 랜드화가 과도하게 평가절하 되었으나, 2013년에는 점진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연말 대미 달러 환율이 8.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나이지리아

□ GDP : 7.0% 성장

- 2012년 경제성장률은 4/4분기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전년 7.1%에서 6.5%로 떨어졌으나 2013년 및 2014년 성장률은 각각 7% 및 7.3%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.
 - 다만 전체 노동인력의 2/3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부진과 부족한 인프라, 사회 불안정 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.
- 원유 및 가스개발이 정체를 보이면서 동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, 여전히 경제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.
- 한편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투자가 확대되면서 인프라 개발 관련 수입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농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민간 소비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물가 : 10.5% 인상

- 2012년 1/4분기 연료 보조금 폐지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급등한바 있으나, 2013년에는 석유 및 식품 가격의 보합세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10.5%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, 2014년에는 10%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.
 - 다만 전기요금 및 수입관세 인상, 환율상승, 재정지출 확대 정도에 따라 물가 상승폭이 조정될 수 있음.

□ 기준금리 : 11.0%

- 2013년 기준금리는 전년보다 1% 인하된 11.0%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.

□ 재정수지 : 3.3% 재정적자

- 원유 생산량이 기존 하루 24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로 증산되는 한편, 원유가격도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, 2013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.2%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.
- 한편, 나이지리아 부채규모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GDP 대비 30%를 훨씬 하회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□ 환율 : 160.0

-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Naira화(NGN)의 대미 달러 환율을 $155 \pm 3\%$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나, 이미 선물시장에서는 통화 가치가 10% 하락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바, 2013년 평균 환율은 160 수준, 2014년에는 165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남 아 공

□ GDP : 2.2% 성장

- 2013년 남아공 경제는 불확실한 세계경제, 내수부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2.3%를 하회하는 2.2%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, 2014년에는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 및 물가안정 등에 힘입어 3.5%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□ 물가 : 5.9% 인상

- 2013년도 물가상승률은 식품가격 급등,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5.9%(2012년 5.6%)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
□ 기준금리 : 5.0%

- 높은 물가상승률,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, 낮은 경제성장률 예상 등에 따라 현재의 5%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.

□ 재정수지 : 4.5% 재정적자

- 재정적자 폭이 2012년 GDP의 4.8%에서 2013년에는 4.5%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환율 : 8.60

- 2012년중 남아공 Rand화(ZAR)가 과도하게 평가절하 되었으나, 2013년에는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, 연말 대미 달러 환율은 8.60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잠 비 아

□ GDP : 7.0~7.5% 성장

- 대규모 인프라 투자, 안정적인 구리가격, 내수확대 등에 힘입어 2013년 및 2014년 GDP 성장률은 각각 7.0% 및 7.5%가 될 것으로 보임.
 -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, 정부가 세금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어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.
- 구리부문이 GDP의 30%, 수출 수입의 75%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리 가격 및 생산량이 잠비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구리 생산량이 2000년 257천톤에서 2012년 1백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, 2014년에는 1.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- 2013년도 예산이 주로 인프라 확충, 특히 전력 인프라 개선에 집중되어 있는바,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까지 발전용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임.
- GDP의 13%를 차지하는 농업부분이 최근 수년간 연평균 7% 이상 성장해 왔으나, 투자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□ 물가 : 7.0% 상승

- 농산물 생산증대 및 자국통화 강세 등에 따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7.0%, 2014년에는 6%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.
 - 다만, 공무원 임금 및 전기요금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아, 물가안정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.

□ 기준금리 : 9.25%

- 2013년 기준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와 지속적인 경기 성장세 등에 힘입어 현재의 9.25%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.

- 잠비아 평균 대출금리는 2011년 24.6%에서 2012년 8월 17% 수준으로 낮아졌으나,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21~24%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.

□ 재정수지 : 5.0% 재정적자

- 인프라 개발 및 농업, 관광, 제조업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 2013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%로 확대될 전망이나 2014년에는 부채 규모 축소 노력에 따라 4%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임.
- 재원은 세수(77%), 원조자금(4.7%),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원조자금 유입 감소로 인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환율 : 4.65%

- 잠비아 Kwacha화(ZMW)의 대미 달러 환율이 5.28로 저평가되어 있으나,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펀더멘탈 등에 힘입어 2013년 평균 환율은 4.6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.

<참고자료>

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거시경제 전망

구 분	GDP성장(%)			평균물가상승(%)			재정수지(%)		
	2012	2013	2014	2012	2013	2014	2012	2013	2014
앙 골 라	7.8	8.0	8.5	10.3	9.0	8.0	5.5	5.0	4.0
보츠와나	3.0	4.0	5.0	7.6	7.0	8.0	1.0	1.0	0.0
가 나	7.0	7.5	8.0	9.1	9.5	8.5	-7.0	-6.5	-6.0
케냐	5.0	5.3	5.7	9.6	6.5	7.5	-5.5	-5.0	-4.9
모잠비크	7.0	8.0	7.5	2.6	7.0	8.0	-5.8	-6.3	-6.5
나미비아	3.5	4.5	4.2	6.6	6.0	5.4	-4.7	-5.2	-5.0
나이지리아	6.5	7.0	7.3	12.3	10.5	10.0	-3.5	-3.3	-2.7
남 아 공	2.3	2.2	3.5	5.6	5.9	5.3	-4.8	-4.5	-3.7
탄자니아	7.0	7.3	7.5	16.1	9.5	8.0	-6.0	-5.9	-5.6
잠 비 아	6.5	7.0	7.5	6.5	7.0	6.0	-4.5	-5.0	-4.0
아프리카 (사하라이남)	5.0	5.7	5.5	9.0	7.1	6.1			
세계 전체	3.3	3.6	4.1	3.9	3.7	3.6			

<출처> 남아공 RMB(Rand Merchant Bank) Global Markets Research